

研究論文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 3·1운동 전후 나혜석과 김기진을 중심으로 -

권보드래\*

- |                      |                    |
|----------------------|--------------------|
| I. 모방 추월의 꿈과 그 종말    | IV. 민족적 현실의 표현과 계급 |
| II. 歐州大戰과 동등성의 감각    | V. 어떤 결론, 구미의 위력   |
| III. 改造思想 우주와 인류와 민족 |                    |

I. 모방: 추월의 꿈과 그 종말

한국 근대가 모방의 열정으로 시작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주체적 모색이나 저항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대를 개척한 주동력은 先進에 대한 모방의 욕망에서 나왔다. 華·夷라는 구분에 점령당해 있던 세계가 개화·반개화·야만이라는 전개 속에서 재편성된 이래 모방은 차라리 유일한 길이였다. 華·夷가 뛰어넘을 수 없는 초월적 구분이었던 데 반해 개화·반개화·야만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만이 있다고 선전되었으므로, 모방은 전제이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지만이 문제였다.

『서양사정』, 『문명론의 개략』 등을 통해 근대 초기 한국 사상가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福澤諭吉에 따르면 “야만은 반개로 향하고 반개는 문명으로 향하며, 그 문명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진보하는 과정에 있다.”<sup>1)</sup> 유럽과 미국의 문명, 아시

\* 서울대학교 강사, 국어국문학 전공

1) 福澤諭吉, 정명환 옮김, 『문명론의 개략』(광일문화사, 1987), 23쪽.

아의 半開, 아프리카·오세아니아의 야만이라는 도식은 완고한 듯 보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판단의 차이 때문에 미세한 변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2) “순간순간 진보” 하는 문명의 특성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기도 한다. 모든 문명이 진보한다면 뒤쳐진 문명으로선 영원히 後進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지만, 1900년대 중반까지 비관론이 대세는 아니었다. 백인종·황인종·흑인종을 대별하는 우생학적 인류학도 이때까지는 광범하게 유행하지 않았다. 저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을 뿐이다. 근대는 단일 기준에 따른 분류와 위계화로 육박해 오면서도 추월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

1905년 외교권 박탈에 이어 1907년 고종이 강제 폐위당하면서 추월의 꿈은 종말을 고했다. 1907년 이후 1909년까지 교육·출판운동은 역설적인 열기를 띠지만 3) 폐색된 상황에서 일순간 또렷해졌던 의식은 곧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신문지법이 제정되고 사립학교가 규제 대상이 되는 등 외적 탄압도 거세졌지만 더욱 큰 문제는 진보를 희망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교육과 실업으로 실력을 기르고 애국의 열정으로 국가정신을 함양하면 머잖아 문명 諸國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 던 기대는 실질적으로 봉쇄당했다.

문명=善일 수 있는지조차 의심을 사게 되었다. 똑같이 弱肉強食이라 해도 이전에는 활동의 조건으로 수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강자의 횡포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문명이라는 글자를 잘못 해석하여 용용평화함으로 행복을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완만한 꿈”이며 強力보다 진리를 중시하는 태도 역시 “썩은 선비의 오활한 의논”이라는 것이었다. “장래 몇천 년 후에는 어떤 장려한 황금시대에 지상천국을 건설될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목하 20세기는 문득 천지개벽한 이후로 전고에 없는 제일 큰 홍수가 범람한 세계”라는 주장이 대두했다. 4) 힘만 키우면 도달할 수 있을 듯 보였던 이상 세계가 “몇천 년 후”로 밀려난 것은 크나큰 변화였다. 진보와 번영 대신 생존이 과제가 되었고 문명의 이상 또한 심각하게 동요했다.

2) 예컨대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자 논설에서는 문명국=영국·미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개화국=일본·이탈리아·러시아·네덜란드, 반개화국=한국·중국·태국·페르시아·터키·이집트, 야만국=아프리카·오세아니아 일대라는 구분법을 내세우고 있다.

3)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호(1999. 12) 참조.

4) 《대한매일신보》 1908. 8. 9.

1910년 일제강점 이후, ‘至善至美 에 가깝다 했던 문명의 실상에 대해 또 한 차례 심각한 회의가 몰아닥쳤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이 그 계기였다. 1910년의 강점도 큰 변화였겠지만, 1905년 이후 외교·군사·사법 등 제 권리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목격해 온 눈에 그것은 ‘追認’처럼 보였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민영환, 조병세 등의 자결이 강렬한 정치적 화학반응을 불러일으킨 반면 1910년 일제강점 전후로는 그런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웅변한다. 흥범식, 황현, 이만도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적지 않았지만 1905년과 달리 그 범위는 유림층에 제한되었고, 자결의 날짜나 방식 역시 격렬하다기보다 유장했다. 강점 이후의 언론·사상 통제 때문이 아니라도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은 발굴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애국지사는 1909~10년 사이 망명해 버린 다음이었다.<sup>5)</sup>

한국인을 일본인과 강제 결혼케 할 것이라는 등 한국인 명의 재산은 모두 빼앗을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지만<sup>6)</sup> ‘총독 의 정치는 극단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이었고, 새 식민지에 배치할 군사·행정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까닭에<sup>7)</sup> 간헐적인 포악성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拓植회사를 통한 일본인 이민이 격증했고 공동묘지령 등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조치가 잇따랐지만, 이들 변화는 그 자체로는 ‘결정적인 계기 가 되지 못했

5) 일제강점 직전인 1910년 7월, 당시 경무총장 겸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明石元二郎은“ 폭도봉기= 의병운동: 인용자 주의 시기는 지났다면서 이후 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에 기초한 비밀결사의 위험을 경고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7)(국사편찬위원회 2001), 134~135쪽에서 재인용). 강기동, 채응언 등 의병운동세력이 남아 있었고 각처에 국권회복단 광복단이 결성되는 등 1910년대에도 저항의 기운은 끊이지 않았지만, 앞 시기 저항의 양식이었던 ‘救國’의 이념과 ‘의병’이라는 結社는 불가능해졌다. 탄압과 통제 등 외적 억압 때문만이 아니라 주체의 조건 자체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주체화의 다른 양식이 제기되고 예감되었을 때, 3·1운동은 그 때에야 비로소 폭발할 수 있었다

6) 예컨대 《매일신보》 1910. 9. 8 논설 「단발과 衣制개량에 就하여」: “합병 이후로 단발령을 亟施한다 하며 衣制를 개량한다 하는 일종의 풍설이 유행하니 (···)” 등

7) 예컨대 1910년 현재 7,713명이었던 경찰 헌병 포함 숫자는 1920년 18,376 명으로 1만 명 이상 늘어났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3~24 면). 거꾸로 추적하자면 군인·경찰·행정인력의 충원이 일제강점 후 10년이 경과해서야 비로소 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태훈,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론' 과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 현실』, 47집(2003), 3~10쪽 참조

다. 1914~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야 1910년대 내내 축적되었던 계기는 3·1운동이라는 전국적 항쟁으로 분출해 올랐고 이후 1920~30년대의 파란만장한 변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한국이 세계와, 그럼으로써 한국 자신과 다시 대면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다.

1910년대 당시 ‘구주대전’이라 불렸던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문명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歐州 천지의 震砲雷彈” 소리를 듣노라면 “오호라 우리는 어찌 이같이 적막하며 고통하며 고독하며 陷靜한가”라는 탄식이 절로 새어나왔다.<sup>8)</sup> “한번 구주 열강을 바라보라 포성이 動地하고 연기가 漲天하며 칼끝에서 불이 나고 눈안에서 피가 나니 이것이 진실로 지옥이요 이것이 진실로 악마로다.”<sup>9)</sup> 문명인이라던 유럽인도 同類 사이에 사랑과 연민을 선전할 뿐 적에게는 포악하고 잔학하기 짝이 없다. 돌이켜보면 아일랜드·발칸·멕시코 등 각 지역에서 의 충돌이 모두 유럽인의 잔인성을 증명해 주는 실례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각국 사회주의자가 모두 조국을 위해 彈雨 중에 돌진한 것도 그 예가 되지 않겠는가? 결론은 니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함에 필요만 있으면 전쟁도 좋소 평화도 좋소 평화적 무장도 좋소 무장적 평화도 좋소다. 다만 그 생물생존의 법칙에 대한 필요 유무의 정도 여하에 의하여 수시로 進退屈伸할 바이지 거기 무삼 永世不變하는 是非正邪가 있으리요 (….) 是以로 살육이 만드시 악행이 아니며 구제가 만드시 선행이 아니로다.”<sup>10)</sup> 방향상실 속에 뜻밖의 역동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大正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이 그러했듯 한국 또한 개인·생명·내면 등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sup>11)</sup> 우주 속의 개인이 발견되고 인류 속의 민족이 발견된 것도 이 때였다. 이 흐름은 3·1운동을 전후해 비로소 대중과의 접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글에

8) 김철수, 「신총돌과 신타파」, 『학지광』, 5호(1915. 5), 34쪽.

9) 장덕수, 「신춘을 迎하여」, 『학지광』, 4호(1915. 2), 1쪽.

10) 이상천, 「새 도덕론」, 『학지광』, 5호(1915. 5), 19~20쪽 참조.

11) 다만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국가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개인과 대중의 자유공간을 발견했다면 한국은 일제강점 이후 정치 지향이 불가능해진 불모의 공간에서, 대중과의 접점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을 발견해 가야 했다. 大正 데모크라시의 발화를 알린 첫 사건은 역설적으로 1905년의 러일전쟁 강화반대운동이었는데, 이에 대해선 松尾尊兌, 『大正デモクラシー』(東京: 岩波書店, 2001), 2~41쪽 참조.

서는 나혜석과 김기진을 통해 이 흐름을 일별해 보고자 한다.

나혜석은 1896년생, 김기진은 1903년생. 근 10년에 가까운 연령 차이가 말해주듯 흐름 속에 참여한 방식은 두 사람이 같지 않았지만, 우주·개인, 인류·민족이라는 새로운 지형을 발견하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태려 했다는 점에서는 통하는 바 있다. 우주·인류·민족·개인 등의 공통 지평을 발견한 데 이어 나혜석은 '여성'이라는, 김기진은 '계급'이라는 특수성을 개척하면서 고투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이들의 '여성'과 '계급' 기획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1910년대 보편주의에의 開眼이 특수성의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단초를 발견하려 할 뿐이다. 식민지라는 조건 역시 특수성의 한 양식으로 현현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 역시 먼 전제에 불과하다.

## II. 歐洲大戰과 동등성의 감각

구주문명의 파탄을 보여주는 듯했던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과 더불어 전혀 다르게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 개전의 최초 동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인류의 도덕적 양심과 악마와의 전투와 같은 감”을 띠었던 것이다<sup>12)</sup> ‘참혹’과 ‘공포’라는 각도에서 조명되었던 전쟁이 대의명분 사이의 전투로 돌변해, 敵對方인 독일<sup>13)</sup>조차 “독일 정신과 독일 문화의 수호”를 믿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했다. 물론 저울은 미국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었다.

유럽이되 유럽 외부의 존재였던 미국은 유럽 문명이 직면한 파탄 속에서 예외적인 구원의 가능성으로 보였다. 신생국이며 한반도의 經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존재는 진작부터 신화적이기도 했다.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 나라들이 미국 속국 되기를 자원하여 원하되 미국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12) 「구주대전 이후의 민족적 이상의 진화」, 『개벽』, 33호(1923. 3), 17쪽

13) 당시 일본은 영일동맹에 의해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해 독일 영토였던 중국의 淸島를 공격·점유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인이 스스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리라 생각되진 않지만, 또한 ‘나’와 ‘적’ 사이의 분별이 제2차 세계대전만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쏟아지는 전쟁 보도 속에서 독일을 상대해야 할 難敵으로 인식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自主하라고 권하며”<sup>14)</sup> “하와이는 본래 야만국인데 구라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70여 년 전에 그 섬으로 들어가 차차 토민들도 교육시키고 개화를 시켜 독립국을 만들”더니 “근일에 그 나라 정부에서 미국으로 별도로 사신을 보내어 간절히 청하고 미국 보호를 받아지이라 하는 고로” 어쩔 수 없이 합병에 동의했다는 식이었다.<sup>15)</sup>

제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미국의 신화는 공고하였고, 이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미국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신화의 힘은 더욱 강했다. 집합적으로 미국을 경험한 예로는 하와이 이민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1904년 2천 4백여 명이 이민회사를 통해 하와이로 옮겨간 이래 1920년대 초까지 그 숫자는 6천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난 한국인이 학대 속에서 허덕였고 만주·러시아 일대로의 이주 또한 간난신고를 겪어야 했던 반면, 하와이에서의 삶은 “該地의 생활이 안이하어 보통 수입으로도 과히 곤란치 않은 생활을 하게 되므로 衣之食之가 풍미”하다고 소개되었다.<sup>16)</sup>

신화화된 미국의 압도적 威光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각국 사회주의자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대신 조국수호를 택한 것도 잊혀진 채, 제1차 대전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war against war)’으로 선전되었다. 전쟁 종식에 즈음한 윌슨의 3대 원칙, 즉 무배상·무합병 주장과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의 제안은 세계 구성의 새로운 전망이 되었다. 1917년 혁명 이후 ‘신세계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던 러시아 또한 희망을 보냈다. 폭력과 공포, 약육강식의 시대가 가고 사랑과 평화의 새 세계가 열리리라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신진 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틀에 속박되기 이전, 이들이 인류 일반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 중이라고 상상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sup>17)</sup> 한국에서 이같은 상상은 1919년 3·1 운동을 즈음해 최고조에 달했

14) 《독립신문》 1899. 1. 27.

15) 《독립신문》 1897. 7. 15.

16) 「하와이에 사는 육천동포의 실태」, 『개벽』, 36호(1923. 6), 33쪽

17) 윌슨과 레닌은 “세계 인류를 대표하여 신문명과 영원평화를 선언한 사람”으로 함께 거명되었다. 윌슨이 사회정책적인 반면 레닌은 사회혁명적이라는 식으로 차이 역시 진단되었으나, 1920년대 초까지는 공통점에 대한 인상이 훨씬 압도적이었다(고지영, 「시대사조와 조선청년」, 『학지광』, 20호(1920. 6), 27~28쪽 참조). 윌슨과 레닌 사이의 차이가 근본적·적대적인 것으로 조명되는 순

고, 3·1 운동이 대대적인 탄압의 기록을 남긴 채 스러진 후에도 얼마간 더 지속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참전 이후 각종 강화회의에서 세계 재편의 방략이 논의되고 워싱턴회의(1921. 10~1922. 1)에서 전후 질서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까지에 해당할 무렵이었다.

사랑과 평화의 새 세계에 대한 전망은 '인류'라는 공동체의식 또한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만들었다. 주지하다시피 1900년대는 결코 보편적 인간의 시대가 아니었다. 인간이기에 앞서 국민이어야 했고 세계를 걱정하기 앞서 국가의 부강을 꾀해야 했다. '부국강병'은 1900년대의 지상목표였다. 仁義禮智(信)의 세계에서 富와 強은 낮은 목표였지만, 1900년대는 강·약의 대립구도 안에서 부강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주지시켰다. 제 1차 세계대전이 흔들여 놓은 것이 인식이기도 했다.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강은 그 자체로 전망이 되지 못하고 다만 힘의 충돌 속에서 소진될 뿐이었다. 문제는 부강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즉 궁극적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였다. 일찍이 최남선 주재의 『소년』 등을 통해 원형적으로 모색된 바 있던 '인간'과 '인류'는 이 지점에서 다시 문제가 되었다. 이제야말로 톨스토이를 외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908년부터 1911년까지 간행되었던 『소년』은 1900년대의 담론공간 속에서 여러 모로 이채를 발하는 잡지였는데, 두 차례나 톨스토이 특집을 실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했다. '국가'의 가치가 워낙 절대적이었던 당시 모든 글쓰기는 정치성 혹은 통속 어느 한쪽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고의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에서 굳이 1832년 공화주의자 봉기 장면을 번역하고<sup>18)</sup> 주더만의 소설 중 『憂愁부인 Frau Sorge』이 아니라 『외나무다리 Der Katzensteg』를 선택, 「매국노」로 改題하는 감각이 한쪽에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奇異'하다는 사실을 내세운 각종 신소설이며 변안소설이 차지하고 있었다. 후자조차 '정치'라는 표어를 알리바이로 내걸던 때였다. 『소년』이 소개한 톨스토이는 정치성과 통속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간은 곧 사회주의가 문제적 무게를 획득하는 순간과 일치한다.

18) 『소년』이 「ABC계」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실었던 이 대목에는 마리우스 즉 장발장의 양녀인 코젯트와 사랑을 나누는 청년이 등장하지만, 서사의 초점은 마리우스에게 있지 않다. 籠城 중인 공화주의자들의 열정 자체가 주인공일 뿐이다. 이채를 발했던 『소년』조차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행했다는 것은 1900년대가 정치성을 사유와 담론의 핵심에 놓는 시대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는 점에서 대단히 새로운 선택이었다. 「사랑의 승진」, 「어른과 아해」, 「한 사람이 얼마나 땅이 있어야 하나」 등 『소년』을 통해 소개된 톨스토이의 소설은 보편적인 ‘인간’과 ‘인류’를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9)</sup> 제1차 세계대전은 이 감각을 재생시켰고 일반화시켰다.

구미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비로소 동등하게 마주볼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 다함께 인류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이때 처음 실감되었던 것이다. 이후 구미에 대한 감각은 “너도 밥 먹고 똥 싸며 우리도 밥 먹고 똥 싸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문명하면 우리도 문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조정되는 데까지 이른다.<sup>20)</sup> 민족은 이같은 재조정 속에서 비로소 독자적 가치를 부여받고, 비로소 ‘세계무대’라는 새로운 공간에 나설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여성으로서 1910년대를 증언한 나혜석은 「희생한 손녀에게(1918)」라는 소설에서 이 상황을 독특하게 부각시킨 바 있다. “아 손녀야, 기특하다 그렇게 몹시 앓던 병이 나 나왔구나. 인제는 바로 머리도 곱게 빗고 옷도 암전히 입고 책상 앞에 앉았구나”<sup>21)</sup>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그러나 늙은 할미가 어린 손녀에게 보내는 서간체가 아니다. 이 소설에서 ‘할맘’임을 자처하는 화자는 실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다. ‘손녀’라 불리는 상대 또한 나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비슷한 또래 처녀이다. 한창 젊은 처녀들이 스스로 ‘할맘’이요 ‘손녀’라는 관계에 처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병수발을 들고 있는 화자에게 병자가 어릴 때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준 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당신은 내 할머니요, 내가 이번에 살아난 것이 전혀 할머니의 정성이요”라고 눈물 섞어 말한 때문이다. 기분 나빠함직도 하건만, 화자는 되려 “정신이 황홀해져”는 것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다. 일찍이 절친한 동무를 병으로 잃은 적 있는 화자에게, 그때 전심전력으로 간호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화자에게<sup>22)</sup> ‘손녀’의 출현은 회心の 계기이다. 공부를 핑계대지

19) 『소년』의 톨스토이 번역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최남선의 톨스토이 취향」, 『근대문학연구』, 12집(2005. 9) 참조

20) 김억, 「서양사람이 조선사람 사진 찍는 것을 보고서」, 『개벽』, 35호(1923. 5), 82쪽.

21) 나혜석, 「희생한 손녀에게」, 이상경 편집, 『나혜석 전집』(태학사, 2000), 106쪽.

22) 이런 설정에는 1916년 에인 최승구를 잃은 경험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일본 유학 중이던 나혜석은 최승구가 투병 중인 전남 고향을 찾았으나 학업과 기타 사정으로 곧 일본으로 돌아갔고, 최승구는 그 직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영원한 신여성』)



않고 철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화자는 잘 알지도 못하던 '손녀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근대의 합리적 인간관계<sup>23)</sup>와 입지점을 달리하는 이 관계는 소설 말미에서 '깍두기'와 '고추장'을 강조하는 데서 구미의 가치 일반에 대한 회의로까지 연결되고 만다.

“깍두기 고추장을 먹고서야 너는 정신이 반짝 나며, 甘口味를 붙였다고 했지?” 맥락상 일본이라는 異域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손녀'는 순 한국식 음식을 맛보고야 반짝 기운을 차린다. 화자가 대충 담근 깍두기건만 그것이 한국인에게는 특효약이었던 것이다. “번쩍번쩍하는 쟁반에 받치어 하얀 유리병 속에 각색 元素며 酸을 타서 잡수시라고 천사 같은 간호부가 갖다 주던 工業이 네 病根을 뺀 것은 아니로구나?” 화자는 반색하며 확인한다 “참 남들이 맛있다는 스프나 빵보다도 우리의 입에는 깍두기만치 맛있는 것을 못 보았다. 그리고 라이스 카레나 미소시루를 먹어도 깍두기를 마저 먹어야 속이 든든해진다.” 이념이나 의식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깍두기'라는 먹거리의 신체성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 소설은 마침내 “깍두기의 딸”이니 “깍두기로 영생 하리라는 다소 기괴한 표현에까지 이른다<sup>24)</sup>: “너는 할 수 없이 깍두기의 딸이다 너도 인제 꼭 그런 줄을 알았을 줄 믿는다. 깍두기로 영생하는 내 기특한 손녀여!”<sup>25)</sup>

나혜석에게 구미의 가치는 일종의 '전제'였을 터이다. 스크랜튼이 설립한 수원 삼일여학교를 다녔고 진명여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 유학을 떠난 나혜석에게

나혜석, 『한길사, 2000』, 124~125쪽 참조.

- 23) 그 이상은 '남에게 의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각자 독립된 처지로 생활을 꾸려가라는 충고를 통해 설득되곤 했다. 《독립신문》의 '독립'은 이 점에서 나라의 독립뿐 아니라 개인의 독립까지 의미했다(류준필, 『19세기말 '독립'의 개념과 정치적 동원의 용법』, 『근대개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소명출판, 2004), 26-29쪽 참조).
- 24) 주인공의 헌신에서 기독교 보편주의의 영향을 읽어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으나는 의견이 있었다. 기독교가 보편주의적 감각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혜석의 경우 생애나 작품 활동을 통해 기독교의 영향이 도드라지는 않으나, 『경희』 마지막 대목이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은 많은 축복을 가졌습니다(…)”라는 기도문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기독교의 일반적 영향을 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독교의 神이라는 '보편의 아버지'의 권위에 힘입어 實父의 명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터이다. 이러한 기독교 보편주의는 그 자체로 '인류'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고, 역시 '인류'와 더불어 새로운 형식으로 발견된 '민족'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했다.
- 25) 나혜석, 『회생한 손녀에게』, 109쪽

있어, 한국은 “경희도 여자다. 더구나 조선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다”<sup>26)</sup>라는 일종의 부가조건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00년대에 압도적이었던 ‘모방양식과는 달리 1910년대의 나혜석은 구미를 운동성의 계기로서 받아들인다 “一動一靜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것, 기성의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방식을 찾기보다 “종일 일을 하고 나면 (...) 반드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혜석은 카츄샤, 마크다, 노라 같은 소설의 주인공이나 스투우, 라이쵸 등 실존하는 유명 인사를 이상으로 하는 대신 “충실히 자신을 발전”시킬 것을 표준으로 하는 “절대적 이상”을 품는다. 이 이상이 외적 표준 대신 “내적 광명”으로 지시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sup>27)</sup>

보편적 표준을 인정하되 그것의 내면화·특수화를 추구하는 것이 나혜석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1918년 작 「경희」에도 역시 구미적 기준과 거리 두려는 전략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희」는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라는 인간 선언으로 끝을 맺지만<sup>28)</sup> 그에 앞서 경희가 교육을 통해 이룩한 자각이 한국의 사회, 한국의 가정과 공존할 수 있음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 한국적인 것의 위력, 그것은 ‘세계 와 ‘인류 를 발견한 위에서 비로소 내면적 근거를 획득할 수 있었다.

### III. 改造思想: 우주와 인류와 민족

1900년대의 ‘국민’이 문명국의 부국강병을 모방해야 할 주체였다면 1910년대 중반 이후의 ‘인류’는 각자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할 주체였다. 물론 새로운 형이상학과 우주론이 ‘인류’의 기반으로 자리해야 했다. “曰 톨스토이의 인도주의, 曰 니체의 초인주의, 曰 스틸러의 개인주의, 曰 졸라의 자연주의, 曰 오이겐의 신이상주의’ 등 각종 사상이 경쟁적으로 흡수되었던 당시<sup>29)</sup> 전

26) 나혜석, 「경희」, 이상경 편집, 앞의 책, 98쪽.

27)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3호(1914. 4), 13-14 쪽

28) 나혜석, 「경희」, 103쪽.

래의 天은 철학적 宇宙로 재편되었다. 천지의 기운이 하나라는 성리학적 사유에도 불구하고 天이 일종의 외부적 권위였다면, 宇宙는 자아가 그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무한성의 질서였다. 자아가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는 내재적인 가치였지만, 과학이 발견한 무한한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가치이기도 했다. “만물이 生하고 인류가 現出하여 무한대의 의지를 포용하고 진선미의 눈을 뜨니 이 세계가 비로소 살았도대!” 할 때 ‘인류’는 무한을 지향함으로써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이다.<sup>30)</sup> “이 우주의 근본자는 一切處에 遍在한 절대 무한의 생명력”이되 “우리의 정신상 우주 근본자와 하나”라는 것이었다.<sup>31)</sup>

우주는 과학=지식=부강의 힘으로 표상된 구미 문명의 세계와 달랐다. 구미 문명은 강렬한 배타의식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우주의 전체 생명을 부인하며 자기 이외의 사람과 민족과 자연을 敵視하며 도륙하면서 스스로 유쾌를 느낌과 같은 병적 심리”를 특징으로 한다.<sup>32)</sup> 이 같은 문명의 파탄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목격된바, 이제 “우주의 대자아에 접속”하는 일이 절박해졌다. 에머슨식 초월주의에 영향 받은 우주론은 이전에 만났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각 존재의 내적 생명, 그리고 그 혼용으로서의 거대한 조화가 세계를 읽어내는 방법이 되었다.

1919년 3·1 운동이라는 민족적 열정의 분출은 이 같은 우주 및 인류에의 開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인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깍두기의 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었듯, 우주의 발견은 각 개인에게 초월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동시에 각 민족의 삶에 보편적 의의를 선사해 주었다. 국가라는 경계 속에서 순환하는 1900년대식 인식 틀이 더 이상 민족을 견인할 수 없었던 당시 우주·세계·개인의 새로운 발견은 민족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안겨주었다. ‘문명’ 대신 ‘문화’가 발음되기 시작하고 국가라는 단위 대신 민족이라는 단위가 부상했다.<sup>33)</sup> ‘구한국’ 즉 대한제국의 역사를 버리고 ‘새 조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진술이 유행하였다.

29) 전영택, 「전적 생활론」, 『학지광』 10호(1916. 9), 16쪽

30) 장덕수, 「신춘을 迎하여」, 『학지광』 4호(1915. 2), 3쪽.

31) 장덕수, 「의지의 약동」, 『학지광』 5호(1915. 5), 44-45쪽

32) 김기전, 「활동으로부터 초월에」, 『개벽』, 20호(1922. 2), 11쪽.

33) 「범인간적 민족주의」, 『개벽』, 31호(1923. 1) 참조

3·1운동 당시를 참조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위에 민족의 가치를 주장하는 논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에서는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投射”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연해주 대한국민회의 「독립선언서」는 “人道 문제의 새로운 의의”를 논하면서 “세계는 파멸로부터 구원되어야 하며, 세계 개조의 기초 위에는 자유, 평등, 박애, 민족자결의 확고한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대표본부의 호소문에도 “정의와 인도로 세계를 개조하는 때” 2천만 민중은 “자유와 평화의 광명한 극락”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 전진을 列國이 지켜보고 있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sup>34)</sup> 이런 인식이 만세시위에 참여한 일반 민중의 인식이었다고 한다면 과언이겠지만, 3·1운동이라는 장의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 이런 인식이었음은 분명하다. 1910년대 내내 流路를 찾지 못했던 민족의식은 비로소 적절한 통로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일반의 반응은 뜨거웠다.

3월부터 5월, 북으로 함경북도 북단에서 남으로는 제주에 이르기까지, 총 1천 2백회 이상의 시위가 벌어졌고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사망자 7천여 명에 부상자 1만 5천여 명, 일본 경찰의 통계를 빌더라도 5백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시위의 열기가 사그라진 후에도 민족감정의 熱度는 좀체 식지 않았다. 1919년 말 총독부에서는 한국인이 여전히 “귀천빈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독립을 꿈”꾸고 있다고 보고했고, 반대편의 상해임시정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일부 유산계급과 仕宦界를 제외하고는 반일감정이 매우 뜨겁다고 결론지었다.<sup>35)</sup> ‘실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맞본 민족적 열정, 그 새로운 근거였던 인류-민족의 연결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1921년까지, 상승기와 하강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세는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승만, 이동휘, 안창호를 각각 대표격으로 하는 경향이 조직적 분리를 한 데서 보이듯 운동의 분화 또한 진행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민족주의는 공통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새 총독 齋藤實이 부임하고 이른바 ‘문화통치’가 선언된 이래 열린 출판·문화와 교육의 공간 속에서 민족적 열정은 유감없이 분출되어 나왔다. 이전에는 학교에 대해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돌아 매 50호당 1인씩 뽑기로 돼 있

34) 임경석, 「3·1운동 전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4호(2000), 80~81쪽

35) 위의 글, 87~88쪽.

는 郡費生 차출도 어려웠던 것이, 3·1 운동 후에는 보통학교 시험제도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갑작스레 입학 열기가 일었다. 郡이 비용을 부담해 교육시켜 준다는 기회도 마다하고 대신 벌금 40원을 감수하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sup>36)</sup>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이 발행허가를 얻은 것을 시작으로 각종 잡지가 물밀 듯 쏟아져 나왔고, 언론의 권리는 새 시대의 특징이 되었다. 3·1 운동 이후 학생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뀐 터였다. 1919년 3월 이후 서울 소재 중등 이상 교육기관은 약 6개월 간 공식적이거나 실질적인 휴교 상태에 있었는데, 9월부터 학교에 복귀한 학생들은 반항과 혁명의 기운을 완연히 몸에 익히고 있었다. “일어 산술책은 집어던지고 천하 대세를 통론”하기를 일삼았고, 여학생들 또한 “수틀과 골무를 뿌리치고 여자해방을 부르짖었다.”<sup>37)</sup> 김기진의 회고를 보면 “그 해 9월 제2학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모두 학교로 돌아오기까지 6개월 동안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정신이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길렀으며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는 것이 표면상으로 변화된 점이라면, 선생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굽히지 않고 맞서는 버릇이 내면 정신의 변화였다.”<sup>38)</sup> 우주와 인류, 개성·생명·내면의 가치는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 銃創! 아— 殺倒! / 머리가 떨어지며 다리가 끊어지도다 / 이놈도 거꾸러지고 저놈도 자빠지도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의 감각이었다면, “이것이 顛覆이 아닌가?”를 외치고 “온 세계는 찬란한 光의 세계로다 / 평화의 소리가 높도다 개조를 부르짖도다 / 온 인류는 신선한 자유의 인류로다”며 희망에 뛰는 것은 미국 참전 이후 1922년 초 워싱턴회의가 폐막될 때까지의 인식이었다.<sup>39)</sup> 1910년대에 만연했던 “반도에 충일한 것은 死鬪”<sup>40)</sup>이라는 진단, “타파하라 우리 세계는 악마의 굴이로다 (...) 타파하라 우리의 나라는 暗濁의 井이로다”<sup>41)</sup>는 절규는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사람의 신체는 신진대사 작용에 의해 7년마다 한 번씩

36) 김병준, 「신학년 입학난과 우리의 각성」, 『개벽』, 23호(1922. 5), 97쪽

37) 「변하여 가는 학생 기풍」, 《동아일보》 1920. 4. 1.

38) 김기진, 「편편야화」, 『김팔봉 문학전집』 2(문학과지성사, 1988), 335쪽

39) 『개벽』, 1호(1920. 6) 권두언

40) 주종건, 「신년을 당하여 유학생 제군에게 모함」, 『학지광』, 4호(1915. 2), 29쪽.

41) 김철수, 「신중돌과 신타파」, 『학지광』, 5호(1915. 5), 35쪽.

새 몸이 된다는 생리학적 설명이 유행하면서 사랑과 평화의 새 세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어 나갔다.

러셀이며 카펜터 등 개조사상가가 주목을 받았고 문화=자아의 자유로운 향상·발전이라는 가치를 주장한 쿠와키 겐요쿠(桑田巖鷲)와 소우다 키이치료(左右田喜一郎) 등 일본 문화주의·인격주의 사상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sup>42)</sup> 유명한 개조사상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이미 1910년대 후반부터 한국 유학생회의 단골 초청 연사였고, 장덕수, 송진우, 현상윤, 진학문, 최승만 등 두각을 나타내던 유학생과 두루 만남을 가진 바 있었다. 한국 유학생을 위해 매달 학비 보조를 제의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sup>43)</sup> 러시아에 의해서도 고무된 국제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바야흐로 민족해방=인류해방일 수 있는 시기를, 그 투쟁방법조차 流血이기보다 改造일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는 듯 보였다.

#### IV. 민족적 현실의 표현과 계급

꿈이 오래 가진 않았다. 1922년 2월까지 끝었던 워싱턴회의는 민족자결주의가 패전국 식민에 대해서나 관철될 수 있는 원칙임을, 그리고 평화 대신 새로운 열강 구도가 출현했음을 알리면서 막을 내렸다. 환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더욱이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는 ‘문화통치’라는 허울 아래 치밀하게 체계화되고 있었다. 러시아를 제1의 적으로 삼아 북방에 배치되어 있었던 일본 군대가 한반도 곳곳에 분산 배치되었고, 헌병이 사라진 대신 경찰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독립운동의 장래에 다소 희망을 걸고 있던 자도 이제 그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으며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구 대신 안위와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았다.<sup>44)</sup> 1910년대 내내 억눌려 있다가 3·1운동으로 출로를 찾았던 민족감정은 다시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지식과 담론의 층위에서도 엄연한 현

42) 일본 문화주의의 영향에 대해서는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역사비평사, 1991), 181쪽 참조.

43) 이경훈, 『『학지광』의 매체적 성격과 일본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48집(2004. 12) 참조.

44) 임경석, 앞의 글 93쪽 참조.

실로 자리 잡아 버렸다. 3·1운동 이후 언론·출판 공간의 개방 속에서 식민지 한국은 '자기만의 현실'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sup>45)</sup>

1910년대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인 현실일 수 있는지는 사실 불분명했다. 물론 한국이 일본 전체의 현실로 단숨에 통합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동등성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일본 헌법이 적용되지 않은 채 총독이 제정한 制令이 적용되었고<sup>46)</sup> 일본 화폐가 쓰이는 한편 조선은행권은 물론 엽전까지 통용되었으며, 교육제도 또한 年限이 다르고 전문학교·대학교는 아예 규정조차 두지 않는 등 명백한 차별에 기초하고 있었다.<sup>47)</sup> 자치론자들이 주장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945년 광복 때까지 끝끝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민족적 현실을 사고하고 표현하고 공유할 만한 장이 한국인에게에는 없었다. 『신문계』, 『반도시론』과 『청춘』 등의 잡지가 간간 있었지만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만이 계속 발행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당시, 한국인의 독자적인 언론공간은 없대시며 했다.<sup>48)</sup> 일본 유학생 사이에서 『학지광』이며 『여자계』가 나왔지만 그것이 '한국의 현실'을 구성하긴 힘들었다. 당연히 사고와 표현의 권리를 누리려면 일본어 글쓰기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광수는 「愛か」라는 일본어 처녀작을 남겼을 뿐 아니라 유학 시절 일본 문단에 진출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였고,<sup>49)</sup> 주요한은 「불놀이」 이전 여러 편의 日文詩를 일본 잡지에 게재했으며,<sup>50)</sup> 김동인은 소설 창작을 위해 먼저 일본어로 抄를 잡

45) '현실'이라는 용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여기서 '현실'이란 실재론적 현실과 달리 담론이 구성해 내는 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1900년대 부국강병의 국가기획이 무력화된 후 담론·인식 차원에서 정당화(legitimation)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현실이 정당화 논리를 얻고 나아가 신문·잡지의 언론공간을 갖게 됨으로써 담론적인 힘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컫는다.

4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5~26쪽 참조.

47) 『朝鮮總督府施政年譜』 1915년, 338~348쪽 참조. 형식적 수준에서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 발표 이후였다.

48) 그나마 『신문계』와 『반도시론』은 竹內錄之助라는 일본인이 발행하는 친일잡지였다. 최남선이 발행한 『청춘』은 1914년에 창간해 1918년까지 지속되었다.

49) 이광수가 1910년 1월에 쓴 일기에는 “나는 문학자가 될까. 된다 하면 어찌나 될는고 조선에는 아직 문예라는 것이 없는데, 일본 문단에서 기를 들고 나설까는 구절이 보인다 『이광수전집』9 (우신사, 1979), 333쪽).

50) “내가 쓴 「불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적인 산문시로는 맨 처음이라고들 하는데 일어로는 그 전에 발표된 것들이 있다. 『아계보노』에도 실렸고 『手才文壇』이라는 잡지에 당선도 했다 (...)” 5

는 노고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기진 역시 유학 시절 여러 편의 일본어 소설을 써 『改造』에 투고하였다. 소설로서는 처녀작이었던 「붉은 쥐」는 본래 일본어로 창작한 것을 옮겼다고 한다.<sup>51)</sup> 상황이 이대로 였다면 이들은 아마 ‘일본의 현실에 특수한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 말 폭력적인 상황에서의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 논의가 증명하듯, 식민지인에게 제국주의 ‘본국’은 어쩔 수 없이 ‘보편’이기도 했다. 일본 신문·잡지를 친근히 하고 한국 신문·잡지를 홀시하는 태도는 식민지시대 전반을 통해 근절되지 않았다.<sup>52)</sup>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글을 쓰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하여 들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은 늦었어! (….) 그것도 전 같으면 모르겠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부지하세월이지! 우리는 직접 일본말로 글을 쓰고 일본사람에게도 맞부딪혀 파고 들어가야지…”<sup>53)</sup> 본래 일본어로 썼다는 김기진의 「붉은 쥐」에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등장한다. 초고 집필 시기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진술은 아마 한국어 언론·출판 공간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이전의 것이리라고 짐작된다.

주로 중국을 통해 신지식을 흡수했던 1900년대의 지사들과는 달리 1910년대의 유학생들은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제 것’으로 느낄 법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제국주의의 수도 東京도 이들에게는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대상이었다. “사랑하는 동경이 재가 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오랫동안 나의 발바닥을 만들어주던 동경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김기진은 관동대진재를 두고 이렇게 부르짖었다.<sup>54)</sup> 한국인 6천여 명이 학살당했는데도 東京이 ‘사랑하는 동경’일 수 있었을 정도로 일본은 낙익은 땅이었다.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월한 나’이기도 했다.<sup>55)</sup> 東京 銀座 거리를 거닐다 喫茶店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은 유학 체험자들에게 거의 같

---

학년 때부터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 우리말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주요한문집』1(요한기념사업회, 1982), 20-21쪽).

51) 김기진, 「나의 문학청년시대」, 『전집』 2, 451쪽

52) 石溪, 「경상도행 나의 추수」, 『개벽』 53호(1924. 11), 62쪽 참조

53) 김기진, 「붉은 쥐」, 『김팔봉 문학전집』 4(문학과지성사, 1988), 15쪽

54) 김기진, 「마음의 폐허」, 위의 책, 238쪽

55) 물론 김기진은 “나는 일본인의 피를 먹고 싶다”로 대로에서 외쳐왔던 경험 또한 술회하고 있다. 제국에 대한 찬탄과 증오는 나란히 가는 것이었다(김기진, 「편편야화」, 341쪽).



망과도 같았다.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 또한 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듯 보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한국의 현실은 사고와 표현과 공유리는 틀 속에서 자기 영역을 찾게 되었다. 당연히 일본 현실과 다른 한국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일어났다.

김기진은 이 '한국적 현실'을 포착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 비평가이다. 김기진이 때때로 쓴 소설은 별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1923년 『개벽』에 「Promenade Sentimental」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 '雜感'의 창작은 폭넓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소설도 수필도 평론도 아닌 '잡감'이라는 특이한 형식을 빌려 김기진은 식민지인으로서의 고뇌를 중형으로 토로하였다. "그립던 서울의 봄도 자취 없이 되고 말았다"는 「Promenade Sentimental」의 첫 문장이 보여주듯 김기진에게 있어 글쓰기는 한국=서울의 현실을 발견하는 방편이었다.

"혼돈과 오만과 숙면의 조선—똑같은 의미의 서울 (···) 4·5층 빌딩이 하나씩 돌씩 늘어서 있는 발 아래에는 "돈 한푼, 돈 한푼"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목을 짜고 있는 데가 이곳이 서울이다."<sup>56)</sup> 한국 현실 가운데 김기진이 각별히 관심을 둔 것은 빈민과 노동자, 몰락해 가는 중소 상공업자 및 상인의 생활이었다. 아마 "저 건너 이판서나 강참판"은 일차적인 관심대상이 아니었을 터이다. 문제는 '무산계급'이라 칭한 전자의 삶과 한국의 현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상정했느냐는 점에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운동이 확산되면서 제1의 적으로 지목된 것은 국내 자본가와 지주였으며, 일본 제국주의는 간접적인 타격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특히 1928년 코민테른이 발표한 이른바 12월 테제 이후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은 떠올리기 어려운 가능성이 되었다. 한국이 당면해 있는 혁명은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지만 그 성격은 전적으로 반부르주아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부르주아에 대해선 동맹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12월 테제의 견해였기 때문이다. 결국 1930년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을 버리고서라도 계급을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sup>57)</sup>는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비민족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비록 사회혁명을 열망한 저변에 민족해방의 염원이 깔려 있었을지언정, 그것에 표면에서 떠오르지 않는 무의식처럼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56) 김기진, 「Promenade Sentimental」, 『개벽』, 37호(1923. 7), 82쪽.

57) 서중석,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 『아시아문화』 7호(1991).

김기진이 대변했다 할 수 있는 시기, 즉 1923~24년은 달랐다. 김기진은 무산계급에게는 ‘이중의 학대’와 ‘두 개의 작’이라는 문제가 있음을 누차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무산계급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 1923년 부업공진회 때문에 경북궁 앞 해태가 철거되자 김기진은 이렇게 부르짖는다. “아아 해태는 어디로 갔느냐. 해태는 울고 있다 (...) 가을이 깊어가자 해태의 울음이 사방에서 들리어온다 (...) 전 조선이 해태의 울음으로 가득히 채워졌구나!”<sup>58)</sup> “해태의 생활은 검은 옷 입은 이의 보장이 없으면 성립되지 못하게 되었다. 백은 흑에게 완전히 정복되어 버리고 말았다.”<sup>59)</sup>

김기진이 발견한 ‘민족’에서 무산자의 얼굴을 겹쳐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다. 김기진 자신이 직접 ‘조선의 얼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기도 하다. “명동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한 중년의 노파가 쭈그러뜨리고 앉았다. 가장 더운 때에 가장 특특한 푸대 조각으로 몸을 감고서 머리에는 역시 푸대 조각으로 수건을 했었다. 소싯적에 매독을 앓았는지, 코는 떼어졌는데 그 후에 다시 육피가 움돋았는지, 이상스럽게 납작한 것이 코 모양으로 안면 한복판에 누워 있고, 눈썹은 뽑아버렸는지, 눈두덩과 이마의 구별이 없이 되었으며, 앞니는 두 개가 쌍방으로 갈라서 한 개씩 빠지고 볼따구니의 살은 그대로 피둥피둥하게 찌서 더군다나 작은 코를 폭 파묻어버리고 말았다. 따가운 일광의 직사를 받으면서 쓰레기통에서 주운 듯싶은 먹다가 내버린 호떡 조각을 씹고 앉았는 그의 얼굴은 더운 물에 데쳐놓은 고깃덩이같이 붉다 (...) 나는 그때, 아아 그때, 바로 거기에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sup>60)</sup>

김기진은 사랑과 평화를 향한 개조를 믿었던 시대에서 ‘힘’을 숭배하기 시작한 시대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기진이 한국 언론계에 등장한 1923년부터가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연도였다. 신년벽두부터 ‘사회혁명만세’를 제창하는 불온 유인물이 뿌러지더니 신생활사 사건에 자유노동자조합 사건이 잇따랐고,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물산장려운동이 조직되고 형평사운동이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1월 서울청년회 개최 강연회에서 권애라가 ‘연애의 자유’를 주제

58) 김기진, 「마음의 폐허」, 『전집』 4, 241쪽

59) 위의 글, 243쪽

60) 김기진, 「불에 데운 살덩이」, 『전집』 4, 291~292쪽

로 연설한다는 소문이 나자 청중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6월에는 기생 강명화가 '사랑을 위해 죽는다'며 음독자살해 일대 화제를 뿌렸다. 무엇보다 9월에는 관동 대지진이 일본을 휩쓸었다. 사회주의자 오오스기 사카에(大森榮)가 학살당했고 한 국인은 무려 6천여 명이나 참혹하게 죽어갔다.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버렸다. 相愛와 相保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순진한 개조론이 퇴조하고 투쟁과 혁명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우주-인류-민족이 일직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민족 내부의 계급 문제가 초점이 되었다. 김기진은 바로 이 전환의 시기에 등장했던 것이다. 전환기의 총아답게 1년여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전성기를 누린 김기진은, 이 1년 동안 열정에서 환멸로 이행하는 극심한 굴곡을 보여주었다. 1923년에 발표한 「Promenade Sentimental」이나 「마음의 폐허」에서 선언한 열정적인 개척의 태도는 1924년 중반 이후 벌써 환멸로 바뀌고 있었다.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구더기와 같이 살다가 구더기와 같이 죽어버리는 백성들이다. 조선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조선이란 땅덩이가 어떠한 곳이냐 두엄탕과 같은 곳이다. 독립만세를 부르던 백성이나 노동자만세를 부르던 백성이나 너나 내나 다 구더기다. 힘없고 용기 없고 반죽이 묽고 느릿느릿하고 허기져 지친 못난 굶뎡이 같은 바보의 무리다.”<sup>61)</sup>

처음에 개조론적 전망 속에서, 즉 “진실한 인류동포형제적 관념으로 한 공산적 사회”라는 희망 속에서 받아들여졌던 사회주의<sup>62)</sup>는 비슷한 시기, 궁핍의 극에서 솟아오른 투쟁으로 새로이 조정되고 있었다. 김기진이 보여준 시기는 민족 계급이라는 상상력이 가능했던 잠시, 그리하여 ‘두 개의 작’ 가운데 먼저 일본 제국주의에 주목했던 짧은 시기에 불과했다.<sup>63)</sup>

61) 김기진, 『Twilight』, 『전집』 4, 279 쪽

62) 정규선, 「개조문제에 관여하는 사회연대의 정신」, 『개벽』, 27호(1922. 9), 31쪽 참조

63) 이 시기를 증언하는 다른 진술을 소개해 본다. “조선독립의 희망에서 실망된 원기를 새로이 사회주의상에 변태적으로 그 희망을 펴게 된 것이다 (...) 일반 민중으로서의 대부분은 대개가 독립적 희망의 변태심으로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실망의 餘氣를 스스로 사회주의적 신이상에 부치게 된 것이다”(「적변 우 격변하는 최근의 조선인심」, 『개벽』, 37호(1923. 7), 7쪽). “조선인은 민족적으로 무산계급입니다. 전부가 소작농민입니다”(이돈화, 「재외동포에게, 특히 지도자 되는 여러 선배에게」, 『개벽』, 62호(1925. 8), 6쪽).

## V. 어떤 결론, 구미의 위력

‘인류’라는 추상적 문제의식은 김기진에게 있어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개조론의 전망이 쇠퇴하면서 ‘인류’ 자체는 사라진 대신 ‘민족’의 새로운 감각이 남았다. 모방-추월의 구도 속에 참여한 ‘문명’의 주체로서의 민족이 1900 년대의 민족이었다면, 1920년대의 민족은 ‘인류’라는 보편을 특수화해 발현한 주체였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근본적으로 똑같이 특수한 주체여야 했다. 구미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先進’으로서뿐 아니라 ‘동시대’로서 경험될 수 있었다. 1900년대식 문명론의 구도와 1920년대 이래 인류-민족의 구도는 아직까지도 중첩되어 있는 현실이 거니와, 한국이 곧 세계라는 후자의 인식에 근거해 사회주의사상 역시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다. 이미 김기진에 있어서부터 구미는 혁명의 조건인 ‘세계정세’의 일부분일 따름이었다. 적어도 논리의 수준에서는 그러했다.

그러나 일찍이 “각두기의 딸”임을 자부한 바 있었던 나혜석의 후일을 살펴보면 구미가 그렇게 쉽게 극복될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아챌 수 있다. 1920년대 초 나혜석은 “서양 풍속이라고 다 좋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에 동의하면서 “누구든지 동양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양을 갈 것”이며 “사람이 된 후에 가면 그곳을 이해할 수 있는 창작가, 즉 수입물이 되는 것”이라고 응답했지만<sup>64)</sup> 1927년 6월부터 1년 8개월간 구미 만유를 경험한 후에는 전연 다른 감각을 보여주었다.

이혼 후라는 굴곡이 개입해 있긴 하겠지만 1932년 쓴 「아아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를 보면 나혜석의 구미 체험과 그 이후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빵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스케치 박스를 들고 연구소를 다니고, 책상에서 프랑스말 單子를 외우고 때로는 사랑의 꿈도 꾸어 보고 장차 그림 大家 될 공상도 해 보았다. 흥 나면 춤도 추어보고 시간 있으면 연극장에도 갔다 (...) 조선 외서의 나의 생활은 어떠하였나. 꺾었던 머리를 부리나케 기르고 깡뚱한 양복을 벗고 긴 치마를 입었다. 쌀밥을 먹으니 숨이 가쁘고 우럭우럭 취하였다. 잠자리는 배기고 늘어선 것은 보기 싫었다.” “생활 정도를 낮추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이상을 품고 그것을 실현 못하는 것처럼 비애스러운

64) 나혜석, 「부처간의 문답」, 『나혜석전집』 245 쪽

것이 없는 것 같다. 내 의사를 죽여 남의 의사를 좇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는 것 같다.”<sup>65)</sup> 나혜석은 이처럼 어느새 몸에 배어버린 구미와 한국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 ‘대중의 생활’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다고 자가 진단한다. 다시 한국의 현실에 들어서고 그것을 “의미를 붙여 즐겨서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의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겠다. 일찍이 “동양서 사람이” 된 인물이었건만 구미의 위력은 그토록 막강했던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별세계를 떠나 대중의 생활을 처음부터 체험하고 싶다는 나혜석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1930년 예의 이혼사건이 있었고 1934년에는 ‘계약 관념을 원색적으로 드러낸 최린 상대의 소송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나혜석은 센세이션 속에 살아야 하는 인물로 몰락해 갔다. 근대 초기 모방해야 할 부강한 문명으로 한국을 압도했던 구미는, 몇 차례 의식과 담론의 변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다.

‘인류’ 너머에서 시작했지만 ‘인류’ 미달로 귀착해 버릴 정도로 모방-추월의 도식은 꺼지지 않는 무의식으로 남았다. 모방이라는 도식이 함축하고 있는바 분류(classification)의 질서도 계속 힘을 발휘했다. 보편-특수 관계로서의 인류-민족 像과는 달리 민족·국가·인종을 분류의 질서로 표상하는 세계상은 때로 구미에 굴복하고 때로 정복욕에 불타면서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의 관계를 경험해 나갔다. 인류-민족이 상호 존재를 지속시키는 협력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민족 간 분류체계는 19세기식 진화론을 거듭 상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혹은 나혜석처럼 좌초하고, 혹은 김기진처럼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 혹은 둘 중 하나에 헌신하기도 하면서 식민지시대의 지식인들은 각자의 ‘현실’을 구성해 갔다.

## 참고문헌

-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호, 1999.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7).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2001.

65) 나혜석, 「아아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 위의 책, 318~319 쪽

류준필, 「19세기말 ‘독립’의 개념과 정치적 동원의 용법」,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 2004.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서중석,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 『아시아문화』 7호, 1991.

이경훈, 「『학지광』의 매체적 성격과 일본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48집, 2004. 12.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서울: 태학사, 2000.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서울: 한길사, 2000.

이태훈,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론'과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현실』 47집  
2003. 3.

임경석, 「3·1운동 전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4호, 2000.

주요한, 『주요한문집』 1. 서울: 요한기념사업회, 1982.

홍정선 편, 『김팔봉 문학전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朝鮮總督府施政年譜』, 1915.

福澤諭吉, 정명환 옮김, 『문명론의 개략』, 서울: 광일문화사, 1987.

松尾尊允, 『大正デモクラシー』, 東京: 岩波書店, 2001.

● 투고일 : 2005. 7. 4.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 모방(Imitation),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I), 인류(Mankind),  
민족(Nation), 나혜석(Ra Hye-Seok), 김기진(Kim Gi-Jin),  
3·1운동(3·1 Movement), 개조론(Reformation movement)